



제목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 아케메니드 페르시아 · 파르티아 왕조 · 사산조 페르시아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살림출판사
발행일	2008. 8. 25.
저자	유흥태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95
ISBN 또는 ISSN	978-8952209832

**내용 요약**

이 책은 엘람 왕국 성립부터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까지를 다룬 연대기이다. 기원전 4,000년 경 이란 남부 후제스탄 지역에 등장한 엘람 왕국은 정치적으로 연방제 성격을 띠고 팽창하였다. 기원전 4,000~3,000년경 아리아족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서쪽은 유럽 아리아족, 남쪽은 이란과 인도 아리아족의 선조가 되었다. 아리아족 중 가장 큰 종족이 바로 메테족이고, 이들이 메디아 왕국을 건립하였다.

메디아 왕국을 멸망시킨 아케메니드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 때 리디아, 바빌로니아를 장악하였다. 이집트를 정복한 캄비세스 2세의 뒤를 이은 다리우스는 각종 반란을 진압하고 확장정책을 지속하여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서쪽으로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페르시아군은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군에게 격퇴 당했다. 재침공 계획은 이듬해 다리우스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에게로 이어졌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고, 이후 무능한 왕들의 치세가 이어졌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통해 아케메니드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란 북동부에 거주하던 파르티아족이 남하하여 파르티아 왕국을 건설하였다. 파르티아의 지방영주 출신인 아르다시르가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사산조 페르시아이다. 로마 황제를 굴복시킨 샤푸르 1세, 가장 긴 치세 기간을 가진 샤푸르 2세, 비잔틴과 평화협정으로 국가를 안정시킨 호스로우 1세 등이 사산조의 번영을 이끌었다. 이후 허약한 국왕들의 치세가 이어졌고, 이슬람이 흥기하면서 사산조는 멸망하였다. 연대순으로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기 용이한 책이다.